

맑은 정진의 마음이 감화로 전해지길....

높아진 하늘 아래로 청명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시간의 어려움을 일념의 정진으로 이겨냈기에, 맑은 마음 또한 푸른 하늘을 비추고 있는 듯합니다.

어느 때이건 그러했지만 현시대일수록 예술작품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화를 전할 것인지’가 훨씬 비중있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이러한 의미를 소중히 여겨 고스란히 담아내고 이웃과 사회에 함께하겠다는 정성이 한껏 들어서 있습니다. 출범이래 10회에 걸쳐 꾸준하게 소중한 전시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기금마련전시회를 통하여 종단과 학교에 결실을 나누어 온 점도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옛것을 답습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전통불교미술의 예술정신을 현대의 사명으로 승화하려는 불굴의 의지는 문화예술계에 모범이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개개인의 명망을 드러내지 않고, 현대불교미술의 창작과 발전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원력은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대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이어받고 시대의 마음을 더하여 전승하기 위해 불퇴전의 자세를 잃지 않는 동국불교미술인회 모든 작가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관람하는 모든 사부대중에게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8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